

그의 살림집은 삼 층에 따로 있었지만, 그는 거의 24시간을 가게에서 지냈다. 그의 부인은 가게에 내려오는 일이 드물었다. 용건이 생기면 가게와 안집으로 통하는 인터폰을 이용했다. 가끔씩 그의 자식들이 가게로 무언가를 의논하러 들렀는데, 그의 머느리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진열된 운동기구들이랑 그와 내가 함께 쓰는 어두운 방을 열람하듯 둘러보곤 했다. 그녀는 목소리가 조용한 편인데, 약간 느려 더욱 차분하게 들리는 말투로 시아버지인 그에게 할 말을 딱딱따박다 하는 아무진 성격이었다. 굳이 이 가게에 지

진 씨가 못마땅한 듯 나를 나무랐다. 먹을 거라면 뭐가 됐건 환장을 하는 개의 하리통은 옆으로 푹 붙겨져 있었다. 개는 입 안에서 막 뱉어놓은 수박씨처럼 번들거리는 눈으로 나와 전 씨를 올려다보더니 짹짜게 먹을 것을 물고 달아났다.

나는 순두부국에 밥을 절반만 말고 나머지를 전 씨 앞으로 밀어놓았다. 그는 내가 남긴 밥을 국그릇에 마저 부었다.

- 목이 왜 이리 빠근하지, 잠깐 가게 문을 닫자.

나는 벌건 입술을 핥고 있는 전 씨의 긴 헛바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 밋밋해진 구두에 10센티 굽을 붙이자,

### 구두는 다른 신발이 되었다.

### 나는 내 두 다리를 떼어내고

### 건강한 다리로 붙여 넣는 상상을 해보았다.

사람이 필요해요, 아버님? 그녀가 나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약간 높여 말하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앉아 있다가 그에게 다소곳한 자세로 인사를 하고 돌아갔던 날 나는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전 씨는 나를 보내지 않았다. 그가 어디선가 사들여 스포츠용품점 귀퉁이에 이어붙인 컨테이너는 누군가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이 있는 중고였다. 군데군데 철이 까이고 검은 녹이 슬어 있는 사각박스는 나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사람을 사서 컨테이너에 새로 페인트칠을 했다. 흠집들이 갑갑같이 사라졌다. 그는 컨테이너의 실내를 직접 꾸렸다. 칸막이를 하여 가게와 방을 만들고 관 같은 목침대를 짜 비좁은 방 귀퉁이에 놓았다. 침대를 놓은 맞은편에 녹슨 수도꼭지와 싱크대가 있는 걸로 보아 전에 쓰던 사람이 주방으로 사용한 듯했다. 창문이 없는 컨테이너 안은 지하처럼 어둡고 습했다. 빛이라고 두꺼운 철문 틈새로 드는 조각별이 전부였다. 문은 딱 출입문 하나뿐이다. 원래 있던 출입문과 마주본 창문을 그가 칸막이를 하는 작업 중에 폐쇄했다. 단단히 못질을 한 창문이 갑갑했지만 나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기뻐했다. 그가 아니었다더라면 내가 구두센터 주인이 될 일은 없었을 것이다.

- 수, 수선 맡긴 구, 구두를 찾으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 하는 수 없지, 바쁜 일부터 해치워라. 사람이 태어나서 밥을 먹고 사는 게 그리 만만치는 않은 일이다.

전 씨는 군말이 없었다. 나는 컨테이너로 돌아와 재로상자에서 10센티 구두 굽을 찾다가 문득 공중전화부스 쪽을 바라보았다. 어젯밤, 그 여자는 평평잡한 원피스 치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가로줄 빛깔이 일제히 여자에게로 쏠리자, 광대뼈 언저리까지 머리카락이 흘러내린 여자의 푸석한 얼굴이 드러났다. 여자는 사람인지 유령인지 헷갈릴 정도로 움직임이 적었다. 나는 여자를 엿본 문뜰에 눈 대신 귀를 가져다 댔다. 관창을 거리고 했잖아--거긴 따뜻하니. 바람결에 실린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여자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웅크리고 앉은 채 밥을 씹 듯했다. 처음 본 얼굴이었다. 차림새로 보아서는 이 근처 어디에 사는 것 같았다. 가방을 들고 있지도 양을 뺨대려 슬리퍼 안에 푹 빠져 있는 듯한 발은 양말을 신지 않은 맨발이었다. 나는 아무렇게나 늘어진 구두들을 정리하고 어질러진 구두와 통들을 한쪽으로 치운 다음 다시 밖을 내다 보았다. 여자는 가고 없었다.

- 점심 먹어야지.

전 씨가 밖으로 나갔다. 그는 그의 아내가 외출을 했을 때만 나랑 밥을 먹었다. 그것도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보고도 점심약속이 잡히지 않을 때만 나를 찾았다. 나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그를 따라 분식집으로 갔다. 밥을 기다리는 동안 만 원짜리 네 장과 오천 원짜리 한 장, 천 원짜리 열다섯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한 달에 세 번으로 나누어 내는 밥값이다. 돈을 챙긴 아줌마가 계산프라이 세 개를 서비스하며 내다 주었다. 나는 그중 한 개를 식당 밖에서 열정거리는 유기견에게 던져주었다.

- 사람이 먹는 걸 함부로 짐승에게 주는 거 아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부스로 갔다. 수화기를 들고 재발신 버튼을 눌렀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내음이 끝난 후까지 전화를 들고 서 있었다. 머리가 험클어졌고 눈빛에 초점이 흐렸고 시퍼런 발등을 드러낸 맨발벗은 여자는 어디에 전화를 걸려고 했던 걸까. 나는 컨테이너로 들어와 누군가 맡겨놓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고 있는 여자구두를 꺼냈다. 한쪽 구두 속이 울퉁불퉁했다. 나는 형질 쪼가리를 문쳐 구두 속에 집어넣었다. 누군가 밟긴 지 이 년을 넘도록 찾아가지 않고 있는 구두였다. 유일한

## 광주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 당선 소감

# “소설은 짓곳은 날씨 같아요”



당선자 박이수씨

- ▲ 1966년 나주 출생
- ▲ 광주대 문예창작학과 졸업
- ▲ 광주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과정

스터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란다 창 커튼을 걷어놓은 채였어요. 거세게 부는 바람으로 온갖 사물이 흔들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설을 공부하려고 문학을 처음 찾던 날도 날씨가 꼭 오늘 같았습니다.

“오늘 날씨 참 소설적이죠?”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설은 정말 짓곳은 날씨 같아요. 해와 구름과 빗방울이 눈앞을 흐려놓고 있고 때론 무시하게도 합니다.

겨우 70매 정도의 단편을 쓰는 동안에도 먹구름처럼 어두워졌다가 번개처럼 번쩍거리기도 하니깐요. 쓰고 있는 소설을 완성할 수 있을까, 늘 의심스러웠습니다.

응모한 사실조차 깜빡하고 있었는데, 당선소식을 접했다는 당선자들의 소감을 읽을 때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목을 빼고 기다렸던 날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들을 이제야 믿게 되네요. 정말 저도 깜빡, 하고 있었거든요.

당선소식을 듣고 나서 읽고 있던 책을 두어 문장 소리 내어 읽다보니 비로소 실감이 느껴져서 목이 젖어왔습니다. 이제 소설을 써도 된다는 허락을 얻었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광주대에서 소설을 가르치시는 이화경 교수님, 이기호 교수님 그리고 신덕룡 교수님, 문예창작과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생소지에 계시는 문순태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저에게 넉넉한 그들이 되어주시는 부모님 감사합니다. 멀리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만세형 고마워요. 꿈공이 문우들과도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미흡한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뽑아주신 심사위원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단편소설 부문 심사평

# 소설 자체의 힘과 필연성 느껴져



전경린 작가

- ▲본명 안애금 경남 함안 출생
- ▲1995년 동아일보 중편소설부문 '사막의 달'로 등단
- ▲2007년 제 31회 이상 문학상 수상 '천사는 여기 머문다'
- ▲경남대학교 교수

예시를 통과해온 10여 편의 작품 중 '박쥐' '여기 안나는 없다' '컨테이너' '문신' 네 작품을 관심 있게 읽었다. '박쥐'의 경우 박쥐라는 강렬한 메타포에 비해 이야기 구조가 허술했고 '여기 안나는 없다'는 구조는 탄탄하지만 분위가만 만들어갈 뿐 끝까지 결정적인 사건이랄 게 담기지 않아 허전했다. 소설적 기본기가 되어있으면서도 기존 소설의 한 즐거움을 잘라내며 낯설게 접목해 들어오는 신선한 작품을 기대했으나 대부분의 작품이 소설의 방법적인 면에 대해서는 안일했다.

'컨테이너'와 '문신'을 두고 고민이 좀 길었다. '컨테이너'는 세상의 커튼을 걷은 면 보이게 되는 힘의 비극적인 균형을 불우함에 대한 연민 없이, 의미 부여도 없이 있는 그대로 하드보일드하게 그려냈다. 추악하고 어둡고 아픈 삶의 이야기지만 소설 자체의 힘과 필연성으로 인해 한순간 풍류의 아름다움으로 전도되면서 당

혹감을 준다.

'문신'은 타인의 폭력으로 인한 수동적인 상처 위에 적극적인 상처를 스스로 새겨 넣어 삶의 무리도 관리해가는 치유의 가능성을 탐문하고 있다. 담담하고 잔잔한 문체로 집중력 있게 주제를 쫓아 의미에 도달했고 소설적 요건도 충실하게 갖춘 작품이다.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구조가 전형적이고 계산된 작위성이 드러나며 결말이 허약하다.

'컨테이너'의 경우도 장애자가 의지하는 사람에게 교환적인 성 착취를 당하는 소설의 구조가 낯익고 결말이 허황하게 열려있는 듯해 망설였다. 그러나 결말이 불안정하다기 보다는 첫 문장과 조응하며 다음 연작을 향해 흘러가는 느낌이다. 이 탄탄한 문체와 거리의 낮은 곳을 조망하는 중립적인 시선이 세상의 연약하고 사소한 개인성들을 어떤 강렬한 그림으로 그려 우리 삶에 선사할 지 궁금해진다.

<광>

광주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 당선 소감

# “소설은 짓곳은 날씨 같아요”



당선자 박이수씨

- ▲ 1966년 나주 출생
- ▲ 광주대 문예창작학과 졸업
- ▲ 광주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과정

스터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란다 창 커튼을 걷어놓은 채였어요. 거세게 부는 바람으로 온갖 사물이 흔들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설을 공부하려고 문학을 처음 찾던 날도 날씨가 꼭 오늘 같았습니다.

“오늘 날씨 참 소설적이죠?”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설은 정말 짓곳은 날씨 같아요. 해와 구름과 빗방울이 눈앞을 흐려놓고 있고 때론 무시하게도 합니다.

겨우 70매 정도의 단편을 쓰는 동안에도 먹구름처럼 어두워졌다가 번개처럼 번쩍거리기도 하니깐요. 쓰고 있는 소설을 완성할 수 있을까, 늘 의심스러웠습니다.

응모한 사실조차 깜빡하고 있었는데, 당선소식을 접했다는 당선자들의 소감을 읽을 때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목을 빼고 기다렸던 날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들을 이제야 믿게 되네요. 정말 저도 깜빡, 하고 있었거든요.

당선소식을 듣고 나서 읽고 있던 책을 두어 문장 소리 내어 읽다보니 비로소 실감이 느껴져서 목이 젖어왔습니다. 이제 소설을 써도 된다는 허락을 얻었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광주대에서 소설을 가르치시는 이화경 교수님, 이기호 교수님 그리고 신덕룡 교수님, 문예창작과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생소지에 계시는 문순태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저에게 넉넉한 그들이 되어주시는 부모님 감사합니다. 멀리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만세형 고마워요. 꿈공이 문우들과도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미흡한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뽑아주신 심사위원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편소설 부문 심사평

# 소설 자체의 힘과 필연성 느껴져



전경린 작가

- ▲본명 안애금 경남 함안 출생
- ▲1995년 동아일보 중편소설부문 '사막의 달'로 등단
- ▲2007년 제 31회 이상 문학상 수상 '천사는 여기 머문다'
- ▲경남대학교 교수

예시를 통과해온 10여 편의 작품 중 '박쥐' '여기 안나는 없다' '컨테이너' '문신' 네 작품을 관심 있게 읽었다. '박쥐'의 경우 박쥐라는 강렬한 메타포에 비해 이야기 구조가 허술했고 '여기 안나는 없다'는 구조는 탄탄하지만 분위가만 만들어갈 뿐 끝까지 결정적인 사건이랄 게 담기지 않아 허전했다. 소설적 기본기가 되어있으면서도 기존 소설의 한 즐거움을 잘라내며 낯설게 접목해 들어오는 신선한 작품을 기대했으나 대부분의 작품이 소설의 방법적인 면에 대해서는 안일했다.

'컨테이너'와 '문신'을 두고 고민이 좀 길었다. '컨테이너'는 세상의 커튼을 걷은 면 보이게 되는 힘의 비극적인 균형을 불우함에 대한 연민 없이, 의미 부여도 없이 있는 그대로 하드보일드하게 그려냈다. 추악하고 어둡고 아픈 삶의 이야기지만 소설 자체의 힘과 필연성으로 인해 한순간 풍류의 아름다움으로 전도되면서 당

혹감을 준다.

'문신'은 타인의 폭력으로 인한 수동적인 상처 위에 적극적인 상처를 스스로 새겨 넣어 삶의 무리도 관리해가는 치유의 가능성을 탐문하고 있다. 담담하고 잔잔한 문체로 집중력 있게 주제를 쫓아 의미에 도달했고 소설적 요건도 충실하게 갖춘 작품이다.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구조가 전형적이고 계산된 작위성이 드러나며 결말이 허약하다.

'컨테이너'의 경우도 장애자가 의지하는 사람에게 교환적인 성 착취를 당하는 소설의 구조가 낯익고 결말이 허황하게 열려있는 듯해 망설였다. 그러나 결말이 불안정하다기 보다는 첫 문장과 조응하며 다음 연작을 향해 흘러가는 느낌이다. 이 탄탄한 문체와 거리의 낮은 곳을 조망하는 중립적인 시선이 세상의 연약하고 사소한 개인성들을 어떤 강렬한 그림으로 그려 우리 삶에 선사할 지 궁금해진다.